

## IgA 신병증 환자에게 있어 ACE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ACE Inhibitor의 치료 효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학교실

박미나 · 최선영 · 문주영 · 정경환 · 이상호 · 이태원 · 임천규

**목적 :** IgA 신병증은 서서히 진행하고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써,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전환효소 억제제의 사용은 IgA 신증 환자의 단백뇨를 개선시키고 신기능 악화를 늦춘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ACE 유전자 다형성은 혈중 ACE 농도에 영향을 미쳐, IgA 신증의 예후와 ACE 전환효소 억제제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국인 IgA 신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ACE 유전자 타입과 ACE 전환효소 억제제 치료 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 IgA 신병증을 진단 받고, 24시간 요단백량이 500 mg/day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ACE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였다. 환자들의 진단 당시 나이, 혈압, 생화학 검사, 24시간 요단백량과 함께, ACE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며 추적 관찰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치료 도중 24시간 요단백량이 50% 이하로 감소한 환자들을 반응군, 단백뇨 감소 정도가 50% 이하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환자들을 비반응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ACE 유전자 다형성을 조사하고 ACE 전환효소 억제제 사용 후 요단백량 감소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 환자들의 진단시 평균 나이는 38+13.7세였고, 남녀 비는 33:18이었으며, 평균 혈중 creatinine은 1.21+0.54 mg/dL였다. ACE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는 II 유전자형이 17명 (33.3%), DD 8명 (15.7%), ID 26명 (51%)이었다. 고혈압 유무, 진단 당시 나이, 진단 당시 creatinine은 각 유전자형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ACE 전환효소 억제제 사용 후 단백뇨가 의미있게 감소한 반응군은 31명이었고, 비반응군은 20명이었다. II 유전자형의 경우 반응군:비반응군의 비율이 9명:8명, DD의 경우 7명:1명, ID형의 경우 15명:11명이었다. DD 유전자형의 경우 ACE 전환효소 억제제 치료에 나머지 유전자형보다 반응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87.5% vs 55.8%).

**결론 :** 한국인 IgA 신병증 환자에게 있어 ACE 유전자 다형성은 ACE 전환효소 억제제의 치료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대단위 연구가 이뤄질 경우 DD 유전자형의 ACE 전환효소 억제제에 대한 반응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